

Remembering Family and Friends

정다운 모국의 친지들 ****

(#1) 저는 3남 2녀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맏딸인 저의 언니는 마음씨도 착하고 아름다운 외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닮지 않아서 교회에 다녀올 때이면 무슨 친구가 저렇게 항상 불어 다니느냐?는 말을 들었을 정도입니다.

네살 차이인 언니와 저는 참으로 친한 사이로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언니는 교회에서 학생 대표로 서울에 있는 전국적인 모임에 갔다가 독감에 걸려서 그 독감은 폐병이 되었고 집에서 요양을 하라는 선언을 받은후 집에서 지났는데 마른 나무가지 같이 말라가던 언니를 위하여 온 식구들 함께 기도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언니가 잠에서 깨어 난후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꿈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의 아픈 부분에 밝은 빛이 비취더니 새까만 벌레들이 아픈 부위에서 바글바글 나왔다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언니는 완치되어 결혼을 하였고 2남1녀의 자녀들이 장녀가 고교를 졸업하기 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암에 걸려 소천을 하였습니다.

저는 3남2녀의 맏아들인 남편과 결혼하여 2남1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저의 남편이 신학교에 재학 중일때 결혼을 하여 개척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교역자로 사명을 감당 하다가 도미하여, 이민초기에 누구나 겪는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다가 자신의 저서 11권 가량의 책이 이미 출판되었고 다음 원고가 책으로 출판될 무렵에 저자를 좀 만나자는 연락을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 가셨다가 뇌출혈로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친정이나 시가의 지나온 날들은 술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각가정이 옛말 하면서 살게 된것 같습니다.

저의 딸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와 친한사이가 되어 가정을 이루었고 저의 장남은 컴퓨터를 전공하여 귀에 컴퓨터를 작동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막내 아들은 법대를 나와서 저와 함께 살고자 메릴랜드에서 취업을 하여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서 2년 정도 함께 살다가 뉴욕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다가, 영국으로 재 발령을 받아 영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위는 백인인데 한국이 궁금한듯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말을 딸을 통하여 들으면서. 한국의 유명한 곳을 관광하듯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더니, 친척 집들을 방문 하고 싶다고 하여서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서 서먹서먹 할까봐 염려를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제가 동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덜러스 공항에서 출발을 하고 딸내외는 그들이 살고 있는 오레곤에서 출발하여 덜러스 공항에서 만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였던 고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저의 휴가시간 한도내에서 휴가를 신청 해야 되었는데 그런 사정에 의하여 함국을 방문 하였을 때는 주로 어르신들께서 위급하실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고국을 방문하게 되어 들 뜯 기분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더니 그림 선교사로 일하는 남동생이 환한 미소를 띠고 저를 맞이 하였습니다.

저보다 늦은 시간에 딸 내외가 도착하여 동생의 차를 타고 대전에 있는 숙소를 향하여 갔습니다

(#2) 점심겸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휴게소에 들렸는데 사위는 김치찌개, 딸은 비빔밥, 동생과 저는 가락국수를 시켰습니다.

사위가 김치찌개에 김치를 어찌나 잘 먹던지....저는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 저의 동생은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기뻐하였습니다.

오후 11시경 동생이 있는 선교센터에서 올케의 안내를 받으면서 숙면을 취하였습니다.

이튿날 오전 9시경 우리 네 사람은 음식점으로 가서 콩나물 국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올케는 친정에서 기쁜 대추들과 감 흥시와 단감들을 냉장고에 보관 해 두었던 것으로 극진히 대접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안내한 동생은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그림 선교사로 있었는데 안식년을 기하여 나름대로 앞으로의 활동을 계획하면서 여러가지를 구상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선교센터로 우리들을 안내 하였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 박물관] 이라는 간판이 있었는데 그 빌딩들은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곳으로 미국으로 가시면서 그 넓은 땅을 고신측에 기증을 하셔서 그 건물들을 역사 박물관으로 개조하였고 그 곳을 선교훈련원으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4층부터 아래로 안내하는 층층마다 전시된 동생의 작품들을 관람하면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프랑스에서 철수하면서 가지고 온 작품들을 포함한 각종마다 전시된 작품들은 저희들을 감격하게 하였습니다.

선교관의 한 벽면은 '깊은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고 푸른색의 물고기들을 나무로 일일히 만들어 그 많은 물고기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과 다소 떨어져 있는 공간의 중앙에는 큰 탑이 있었고 그 정면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빨간색의 줄과 등이 있었는데 여리고 점령 당시에 라합이 창문에 달아 놓았던 빨간 줄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방인인 한국에 배를 타고 오셨을 때 '고종황제'를 비롯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입국을 결사반대하면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을 죽였던 한 사람이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전한 성경책을 자기 집에 도배지로 사용하였는데, 그가 결국 목사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내용의 전시물도 있었습니다

전시관의 한층에는 한면에 선교사님의 조각을 만들어 동생의 양복과 조끼를 입혀 엉거주춤 서 있는 선교사님을 향하여 사방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벽면에는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의 이름이 있는 세계지도가 있었는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 어느나라에 어느교회가 전했다는 내용을 교회의 주보를 사용하여 세계지도 위에 붙여 두어 실감있게 만들어 두었던 것도 특이하였습니다.

한 곳에는 선교사들이 순교한 후 관에 담겨진 관 윗편에 저의 어머님께서 거의 매일 읽으셨던 성경책의 즐거 읽으셨던 성경구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벽면에는 순교자의 머리와 눈썹, 수염에 밀알을 붙여서 만든 작품이 있었는데 밀알로 만든 순교자의 뒷편에 불을 켜면 예수님께서 순교자의 뒷편에 서 계시는 모습이 있어서 특이하고 감명 깊은 작품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큰 작품들이 있는 선교센터를 만들었을 때 그 곳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후원금은 자신을 위하여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후원할 의사가 있으면 중국이나 다른 곳에 선교센터를 만들도록 권유 하여서 동생들의 작품이 몇 개 국 선교센터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하루는 동생의 막내 딸이 어느 곳으로 갔더니, 기금으로 선교센터를 만들어 동생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린튼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우시고 그분이 세우신 학교의 기증을 받아 선교센터가 된 것 등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인 것 같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해군 장교가 검정 고무신 신고 학교를 세우신 다음 길을 가시다가 교통 사고를 당하셨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저에게 복음이 전해 진 것이 새삼 감사 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황톳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점에 있는 음식점에서 도토리묵, 비빔밥, 각종 전을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느 소주회사가 산에 황톳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너무 유명하게 되어 10월 주말에는 유명 가수들이 음악회를 열어 그 황톳길은 더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 길가에 2미터 정도 넓이에 황토를 깔아서 그 황톳길 위를 맨발로 걸으면, 발에 있는 병들이 없어 진다고 하여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황톳길 옆의 아스팔트 길 위로 신발을 신고 걸어 가다가 신발을 벗고 황톳길 위로 걸어 갔더니 처음에는 찬 기운이 느껴졌지만 즐기면서 30분 정도 걸어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솔로 발을 문지르면서 수돗물로 깨끗이 씻고 난후 저의 올케가 가지고 온 타올로 깨끗이 닦고 나니 속이 계운해 졌습니다.

황톳길의 내리막에는 옷을 털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골고루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때로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들이 섞여 있었고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 산속에 절정을 이룬 샷노란 감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사진을 찍기 위하여 시도를 했더니 그 감나무 정면에 있는 다른 나무들에 가리워서 찍을 수 없는 것이 아타까웠습니다.

한 시간 가량 황톳길을 걷고 내려온 딸 내외와 함께 내려 오는데 온누리에 있는 밭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밭이 일대를 아름답게 수 놓아서 사진을 찍기 위하여 들어간 관광객들에 의하여 일부분은 짓밟혀 있는 것이 아타까웠습니다.

코스모스 꽃밭과 아름다운 자연 산천에서 황톳길을 걸었던 것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동생의 말에 의하면 시골 개척교회를 도우셨던 저의 아버님께서는 가마니도 실을 수 있는 큰 자전거를 이용하여 시골교회에 오르간을 기증 하실려고 그 힘한 논둑길로 가셨다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결혼도 하지 않았던 시절, 딸에게 온갖 가정 살림을 책임지게 하셨던 때문에 말씀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알았다면 오르간 운반비 정도는 드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찡하였습니다.

고국 방문을 통하여 지금까지 저와 저의 가정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 하였습니다.

(고국의 정다운 친지방문) #4

저희들은 언니의 막내 아들 호윤의 집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외가 교직생활을 하는 바쁜 일과를 보내면서도 이모 식구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초면인 조카 며느리는 전 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인 것 처럼 어색함 없이 친근감 있는 자세로 저희들을 맞이해 준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의 막내 동생 내외와 두아들이 도착하고 저의 형부도 동참하셔서 쌓인 이야기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밤 11시경 저의 언니의 맨 딸 내외가 도착하여 밤 12시경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그집 가장인 조카의 생일이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축하를 하였습니다

저는 언니의 딸인 향이의 안내를 받으면서 제가 꿈에도 그리워 하는 저의 고교 친구의 집을 GPS의 도움을 받아 찾아 갔습니다.

연락 담당인 저의 동생이 연락을 이미 취하였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 이상 하였습니다. 그녀는 고교시절 3총사라는 별명을 받은바 있는데 연락이 잘되었는지? 를 생각하면서 찾아 갔더니 그녀가 세로준 가게의 주인이 저의 친구는 서울에 있는 며느리 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친구를 기억이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는 그녀가 평소에 건강이 좋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듯 하여서 찾아 갔는데, 친구의 건강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서 가쁜한 마음으로 그곳을 나올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의 이웃으로 있던 가게는 아주 깊은 골목 안에 있었는데 도시 계획으로 인하여 도로변 요지가 되어 큰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없어 졌지만, 저의 집 형편이 아주 어려웠을 때 저의 모든 생활에 도움을 주었던 그 가게 주인은 바로 제가 교직생활을 했을 때의 제자 였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가게를 운영하는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흘러 감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할머니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가게에서 외상 거래도 많이 하였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고마운 인사를 새삼스레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저의 언니인 동시에 단짝 친구였던 언니의 묘소를 찾아 갔습니다.
막내 동생 식구들과 언니의 딸 가족이 함께 비석만 있는 무덤을 찾아 갔을 때 그렇게나 보구싶은 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을 잃고 넋이 빠진듯 우두커니 서 있다가 제가 대표 기도를 한 후 하산 하였습니다.
저는 막내 동생의 차를 타고 하산을 하면서 조카의 집에서 제가 교사가 된 계기를 함께 나누었다고 말 했더니, 동생 또한 직장에서 후배들이 자기를 추월하는 듯하여 승급 시험을 치루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현재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활 전선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언니의 맨 아들인 조카의 집에 다다렸더니 잔디밭이 있는 으리으리한 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저의 홀로 된 형부를 비롯한 저의 딸내외와 저의 친정 동생들 함께 장장 16명이 함께 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큰 조카는 교직 생활을 하는데, 큰 학원을 경영하느라 늦게 귀가하는 아내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니 자연적 음식 준비는 큰 조카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5) “묵은 김치와 맛 김치가 유명하다”고 하는 그 집에서 소문에 듣던 것 처럼 묵은 김치에 돼지고기를 넣어서 찐 것과 고기를 돌돌 말아서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반찬과 불고기 등 부침개, 홍합국을 것들여 놓았는데 상 세개를 붙여 놓고 앉아서 정성이 가득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의 큰 조카는 강원도 주문진에서 헌병으로 복무 했을 때 음식 담당을 했으므로 음식 솜씨가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정 살림을 함께 도우면서 하는 신 세대의 사고 방식이 좋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는 막내 조카의 생일을 저의 딸이 준비해 온 생일 케이크를 나누면서 생일 축하를 함께 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식사를 마친 다음엔 조카가 트럼펫 연주를 하였고, 조카 딸은 바이올린을 연주 하였습니다.

지금도 퇴근한 후, 트럼펫 지도를 받고 있다는 저의 막내 동생이 트럼펫을 신나게 연주하였고, 우리는 합창을 하면서 예정하지 않았던 즉석 음악회를 가진 것이 너무나 감사 하였습니다.

조카 며느리의 친정 어머님께서 자궁암 3기여서 직장과 병원을 오가면서 힘든 사정에 있다는 말을 듣고 저의 딸 내외와 즉석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 후에도 전화 상담을 해 오는 것을 보면서 어려움을 마음으로 함께 할수 있는 것이 감사 하였습니다.

식사준비와 뒷처리 까지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저를 감격하게 하였습니다.

집이 넓어 우리들은 1층, 2층 이곳 저곳에 나뉘어 하루밤을 잘 지났습니다.

저는 새벽 1시30분 경에 잠이 깨었는데, 옛날에는 집이 없어서 자기 몸 하나를 두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각각의 집에서 너무나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었습니다.

큰 조카의 아내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의 사위와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녀의 실력을 인정 할수 있었고 용모도 훌출하여 ‘힐러리’로 통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사위도 기분이 좋은듯 그 집 현관 앞에서 큰 개와 공을 던져 주고 가져오는 놀이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두대의 승용차에 나뉘어 타고 저의 모 교회인 서현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그 교회를 석조 건물로 건축한 후 2층 교회당에서 제가 첫 결혼식을 했던 교회당이어서 더욱 감개무량 하였습니다.

강대상과 그 모든 단상이 49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인것에 눈길이 갔습니다. 우리 식구들 15명이 두 줄에 그득 앉아 있으니 안내 담당자가 오셔서 저의 가족과 저의 동생 박신호 선교사의 이름을 기록해 가서 예배 시간에 소개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막내 동생 내외가 70여명이 되는 찬양대의 찬양대원으로 앉아 있는 모습도 저에게 감명을 주었고 단상 바로 밑에는 악기팀이 앉아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하여 포항에서 온 저의 남동생 내외가 함께 예배에 참여 하여서 감사 하였습니다

주일 대예배후 새로 건축한 별관으로 동생들의 안내를 받아 갔더니, 교회의 역사를 소개하는 곳에 개척 맴버였던 저의 아버님 사진이 여러 곳에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옛날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제가 좋아한다고 가락 국수가 전문인 식당으로 가서 메밀가루를 넣은 국수를 저의 큰 동생 내외가 대접하여 맛있게 먹으면서 형제들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점심식사후 우리는 아버님, 어머님의 묘소로 향하였습니다

(#6) 주저 끝에 가져 갔던 운동화가 산으로 올라 갈 때 안전할 수 있게 해 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큰 나무 가지 하나를 줋어서 지팡이를 삼아 큰 올케의 부축을 받으면서 앞장서서 갔습니다.

제가 미쳐 알지 못하였는데 큰 동생은 당뇨병으로 발이 불편하여 올케가 만들어 준 지팡이를 의지하여 올라 온 것을 뒤늦게 알면서 부디 우리 함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날씨도 맑고 기온도 적당한 가을에 그리워 하던 식구들 함께 아버님, 어머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저의 세 동생들 내외와 제이미, 딸이 함께 묘소를 찾아서 묘소위의 잡초 제거하면서 그리운 부모님의 애듯했던 사랑을 기억에 떠 올렸습니다

6.25사변을 겪으시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 하고자 몸부림 치셨던 아버님, 어머님의 깊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할말을 잊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묘소의 비석에 아버님께서 즐겨 부르셨던 찬송 가사와 어머님께서 즐겨 읽으셨던 성경구절이 새겨져 있어서 그 곳에 새겨져 있는 찬송을 부르고, 성경말씀을 함께 읽은 후 제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잘 인도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

우리는 산을 내려 와서 제가 그렇게나 소원하였던 저의 고교 스승님과 약속된 장소를 향하였습니다.

그 스승님은 제가 고교시절 너무나 가정이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 할수 없었을 때에 저를 이끌어 주셨고 졸업할 때, 제가 교직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은혜를 입은바 있었습니다.

주소는 알지만 전화 번호를 몰라서 모든 것을 계획하였던 저의 동생 박신호 선교사에게 저의 소원을 편지로 하였더니 그 교장님의 주소로 등기편지를 보내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저의 제자가 몇 년 전에 저를 만나기 원하였으나 만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연락하였더니 함께 참여 할수 있어서 감사 하였습니다.

저의 식구들은 밖의 식탁에 자리 하였고, 교장님, 사모님, 저의 제자는 예약된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주선하여 이루어진 식사 시간 인데, 저의 제자가 강력하게 주장하여 전체의 식사 비용을 담당하게 된 것을 교장님께 알려 드리면서 양해를 구 하였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어서 제가 마령하지 못한 선물을 저의 제자가 가져온 과일과 화분들을 제자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고마우신 스승님께 전할수 있어서 감사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다음 사모님께서는 귀속 말로 교장님께서는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장님께서는 저에게 기어이 경비에 보태라고 하시면서 봉투하나를 주셨습니다.

교장님과의 면담을 마친 다음 저의 제자는 기어이 자신의 차에 저를 태우더니 백화점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제가 정색을 하고 뿌리쳤음에도 기어이 코트와 조끼를 사 주고 저희 식구들과 연락을 하더니 식구들이 있는 서문시장으로 안내 해준 후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그 녀에게 고마운 표정을 짓지 않은 것은, 제가 물질적으로 부담을 지우기 싫어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알리기 위함이었으나 제자가 저를 이긴 결과가 되어서 고마움면서도 미안한 만남이

었습니다.

그 후 카나다에 있는 저의 제자로 부터 들려온 이야기는 “선생님과 딱 두시간 함께 있었다”는 전화를 해 왔다는 말을 하였을 만큼 아쉬운 만남이었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의 관계를 맷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정다운 고국의 친지들)

(#7) 제자와의 만남 이 후 우리 식구들은 서문시장에 있는 먹자 골목에서 만났는데 다양한 음식들을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 노점 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노점 상의 음식들과 놀이 기구가 펼쳐진 곳을 저의 사위가 너무나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옛날 솔뚜껑을 뒤집은 듯한 위에 재료들을 부침처럼 돌돌 말아서 온도를 아주 낮추어 즉석 아이스크림 같이 만든 것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시장이 우리 식구들에게는 너무나 신나고 좋았던 곳으로 기억 됩니다.

막내 동생 집에서 하룻밤을 지난후 리빙 룸에 앉아 있는데, 동생이 텔레비전을 향하여 자기가 입력한 이름을 부르면서 “TV야 켜져라”고 소리를 치니 즉시 텔레비전이 켜 지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너무나 발전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항에 여러가지 보기 좋은 장식들을 넣었더니 새끼들이 너무 많이 번식하여서 일부를 꺼내었더니 어미들이 새끼들을 잡아 먹어서 새끼들이 별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제가 그리워하던 친지들을 만나면서 사랑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물고기가 자기 새끼들을 잡아 먹는다는 말도 처음 들었고 큰 고기들이 활동하느라 어항의 안쪽이 깨끗하게 청소된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예쁘장한 강아지를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강아지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후 그 옆에 있는 통에 들어가서 배설을 하면 동생이 뒷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동생은 직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올케는 편의점에 사장으로 일하느라 그날에 필요한 용품들을 컴퓨터로 주문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면서 아침식사 준비를 한 상 차림에는 제가 그 곳에 있었을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인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형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어서 만들었다는 ‘명태코다리’ 조림, 굴비구이, 우거지 찌개와 밀 반찬들 정성이 철철 넘치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위가 좋아 하는 김치를 사위 앞으로 자꾸 갖다 놓았습니다.

딸 내외와 함께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고마운 생각이 가득 하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거의 끝나는 시간에 둘째 동생이 우리를 돋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두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경주로 향하였습니다.

저와 동승한 동생은 자신이 프랑스에 유학하면서 겪었던 일 들, 그림 선교사가 된 일 등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하심을 감사 하였습니다.

경주 불국사에 도착한 후 예약해 둔 호텔에 여장을 풀고 우렁이 쌈밥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는데 쌈 종류가 어찌나 많은지

우렁이를 섞어서 만든 쌈장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쇠고기에는 시선이 별로 안가고 가지를 넣어서 만든 밥과 쌈을 것들여서 식사를 하는데, 꽁치 구이를 어찌나 먹기 좋게 장만해 주는 동생 내외가 감사 했습니다.

경주 일대를 동생 내외의 안내를 받으면서 수학여행을 했을 때의 기억을 떠 올려 봤습니다.

사위는 "각 식구들이 특기가 있다"고 말 하드라는 말을 딸이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림 동생은 짐을 저희들의 숙소에 옮겨 준후 올케의 건강 검진을 받는 일도 있고 하여서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직장에 휴가를 얻어서 우리들의 안내를 담당한 동생 내외가 너무나 감사 하였습니다.

(#8) 경주 시내를 다니고 산과 같은 모양의 왕능을 지나면서 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옳바른 자세로 이끌면 좋지만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잘못 정치를 하면 그 많은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딸 내외는 그 곳에 있는 한 자전거에 두사람이 타고 두사람이 함께 운전 할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동생 내외와 저는 오리 모양으로 된 보트를 타게 되었습니다.

동생내외는 발로 운전을 하도록 안내한 안내자가 " 할머니는 이 쪽에 앉으세요 "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할머니라는 말에 "누님 보고 할머니라" 는 말에 엿잖아 하였습니다.

저 또한 처음으로 듣는 말이어서 기분이 이상 했습니다만, 한국 나이로 75세이니 할머니인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동생내외는 발로 장단을 맞추어 보트의 방향을 조정하고 저는 동생내외를 지켜보면서 호수의 주변을 돌아 다니는데 그 곁의 놀이 공원에서 때로는 겁에 질린 듯한 함성이 들려 왔습니다.
직선으로 가던 놀이 기구가 언덕에서 떨어지듯 내려 올때의 두려움을 이민 초기에 저도 경험 했던 터이라 그들의 두려움을 공감하고도 남을수 있었습니다.

저는 디즈니랜드에 갔을때 철로가 평평히 되어 있는 기차 같은 곳에 아무 의심 없이 타고 가는데 느닷없이 공중으로 올라 가더니 갑자기 아래로 내려 왔을때 저는 이제 식구들도 못보고 가는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는 못 타는 그 놀이 기구가 호수 곁에 있어서 모두의 함성을 들으면서 다섯식구가 함께 했던 이민 초기의 옛날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듯 어둠살이가 끼이기 시작 하였습니다.

경주시내를 다니면서 어릴때 봤던 첨성대를 지금 봤더니 더 작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당한 조명을 통하여 비취지니 더욱 감탄하게 한 고적지였습니다.

넓디넓은 안압지의 호수가를 둘면서 기와로 지붕을 한 건축물과 호수주변을 조명을 통하여 더욱 생생하게 비추어 주어서 낮보다는 밤의 광경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의 식품들을 구입한 후 숙소로 돌아 왔습니다.

동생은 35개월 동안 해양경찰로 복무 하면서 군함을 타고 4개월간 25인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군 생활을 하면서 부엌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때 쌓아온 음식 솜씨를 발휘하여 김치와 고등어 각종 야채를 넣어서 찌개를 만들고, 올케는 오뎅에 무우를 넣어서 오뎅국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요리한 것을 맛있게 먹는지? 에 신경을 쓰면서 정성을 다하여 만든 동생 내외의 그 정성과 요리 솜씨에 감탄을 하고 고마운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 하였습니다.

시골길을 지나면서 " 쌀나무가 참 컸네요 " 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때 미국에 온 딸은 한국말과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만 농촌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에 관한 것은 모를 때가 많이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벼는 논에 심겨 있는 상태의 것, 나락은 껍질과 함께 있는 것, 쌀은 희게 껍질을 벗은 상태의 것이라고 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 했습니다 만 저 자신도 확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탑을 맞추어보면 문무대왕의 비가 보인다고 합니다.

올케 엄마가 "시누이 잘 모시라"고 하신다는 말을 전화를 끊은후 전하길레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양렬 전지로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9)복숭아 꽃, 사과 식초, 세계에서 제일 큰 제철소 , 산과 같은 모양의 무덤, 꼭대기가 우물 정(#) 모양의 사각형 틀을 짜 올린 첨성대, 안압지, 나라의 경사를 맞아 축하연을 거행했던 동궁으로써 문무왕 19년 (679)에 세웠다고 합니다.

궁안에 못을 파고 가산을 만들고 화초를 심고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고 삼국사기 문무왕14년(674) 기록되어 있으며 군신들의 연회나 귀빈 접대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월지는 동서남북 약 190미터 규모의 인공 연못으로 조선시대에는 안압지로 불리었습니다.

저에게 동생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딸내외와 함께 고국을 방문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주의 대웅전 앞에 석등이 있었는데 돌탑을 세워 놓고 그 안에 불을 켜 두었습니다.

석가탑은 남자답고 다보탑은 보다 아름다운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주변을 노랑,빨강 국화꽃들이 장식 되어 있었는데 화분들 마다 기증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천일 기도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신 장애자들 팀도 있었습니다.

그 곳의 한 울타리에 대나무들이 심겨져 있었는데 대나무 줄기가 새 까맣게 되어 있어서 까마귀 같이 검다고 하여 '오죽'이라고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오르내리는 곳에 군밤을 구워 팔고 있어서 물건을 주문하는 편의점 사장으로 있는 올케는 차 안에서 대기 하면서 일을 하였고 구경을 마친 우리들과 함께 군밤을 나누어 먹으면서 동해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동생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올케가 실적이 좋아서 표창을 받고 수입도 좋지만, 아내에게 생활비를 건네주고 서로가 경제적인 문제를 간섭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문무대왕은 죽어서도 왜구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무덤을 바다에 돌더미로 무덤을 삼았다고 합니다.

포항에는 원자력 본부가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냉각을 시키기 위하여서 물이 많은 그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비치 하였다고 합니다.

화산이 폭파 하였을때 용암이 흘러서 냉각된것이 부채모양으로 사람이 조각한 것 처럼 곧고아름다운 돌이 되어져서 그 돌들이 바닷가에 널려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사위는 갖가지의 음식이 새로운 음식들로 차려지는 것이 재미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음식들과 친절함

동생 내외는 순간순간 직장과 핸드폰으로 연락 하면서 직장내의 상태를 파악 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국보 31호인 첨성대로 향하였습니다.

밤이었지만 첨성대 주변을 화려한 불빛으로 환하게 비추었고 옛모습을 보강하여서 옛선인들의 삶을 알려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림사적 19호 닭이 울었다고 계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안압지는 세자들이 살던 곳인데 기와로 멋있게 지은 건물 주변을 호수가 빙 둘러 있게 하였는데 그곳에서 왕과 신하들이 의논을 하였다고 합니다.

679년에 귀빈대접 하는곳으로 지었지만 867년에 재 건축을 하였다고 합니다.

신라 경순 왕이 고려 태조를 초청하여 자기들을 침략하지 말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수시설을 할때 불상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제가 우렁이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우렁이 쌈밥 식당으로 안내 하였습니다.
(#10) 우렁이를 야채와 썩어서 만든 쌈장으로 식사를 하는데 야채를 갖가지의 접시에 담아서 쌈장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호텔 윗층에서 내려다 봤더니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경주 불국사는 김대성이 발원하여 지은 것인데 임진왜란대 일본군에 의하여 불 탔던 것을 다시 복원하여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800년에 만든 계단과 건물, 중앙의 돌계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1200년의 세월이 지난 돌 계단이 아직 보존되어 있었고 손으로 만든 돌계단을 어찌나 아름답게 다듬었는지 감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 입구에 토함산 옥루수가 있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졸졸흐르는 것을 허리 정도의 높이로 된 돌 사각에 담기며 흘러 가게 하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자루 달린 물컵을 걸어 놓아서 원하는 자는 그 옥루수를 아실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방파재를 그냥 만들면 허물어 지겠지만 돌과 돌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서 연결되게 하여 외관상으로도 좋았고 안전 하기도 하였습니다.
콘크리트뿔이 네개 달리게 하여 한개가 바닥에 꽂히는 식으로 하여 움직이지도 않고 벽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언덕과 언덕을 잇는 출렁다리가 밧줄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올케의 부축을 받으면서 갔습니다.
앞서 가는 동생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다리를 일부러 훔들리게 하면서 걸어가서 재미를 느끼기도 하였지만 두려워 하면서 걸어 갔습니다.

누님, 형님이라고 부르는 동생 내외가 깍듯이 위하여 주고 딸 내외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11) 화산이 터진 용암이 급냉하고 균열이 가서 부채 같이 생긴 돌이 신기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져 있었습니다.

각종 생선으로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저의 사위는 제일 재미 있는 식사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간판에는 '머라카노 여기가 제일 싸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벼가 익어서 논에 가득 아름답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쌀나무가 노랗다"고 딸이 말해서 웃었습니다.

해맞이 공원에는 바닷가에 세워진 손과 건물 앞에 펼쳐진 손과 마주치는 시점을 포착하여 1월 1일로 정하고 그 넓은 곳의 가에 있는 큰 가마 솔에서 떡국을 끓여 해맞이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대접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지도의 꼬리 부분에 해당 되는 곳이다.
점심식사는 각종 해물 대게, 소라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한 특이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주상 절리군 (그림)

각종 해물을 수산 시장에서 사 왔습니다.
아침과 어제의 음식이 있음에도 동생 내외는 해물탕을 끓였습니다

둘째 동생 내외와 첫째 동생 함께 저녁에 도착하여 식사를 함께 한 후 그림 동생이 사온 윷놀이 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쌀이 너무나 풍부하여 쌀처분이 힘들어 지고 농민들의 수고가 오히려 역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을 정부는 논밭을 쉬게 하면 보상 한다는 대책을 세워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11) 한마디로 일을 안하면서 수입을 얻게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노조가 너무 쎄어서 일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신문지상으로 봐도 그런것 같이 생각 됩니다.

제가 갔던 각 가정에서는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환경이 파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그런 제도가 절실히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분리 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릴 경우 살살히 봉지를 분류하여 영수증 같은 것을 발견 하여 그 주인을 찾아 낼 경우는 과다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고로 모두가 동참하는 듯 하여 기뻤습니다.

막내 동생 내외가 끓여준 카레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큰 동생과 둘째 동생 내외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막내 동생의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갔는데 그곳 휴게실에서 한 부대의 여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예쁜 차림을 한 그들은 수학여행을 떠나는 고교학생들인데 옛날과 달리 곱게 화장을 하고 멋있는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직 생활을 했을때는 엄격하게 학교에서 통제를 하여 교복이외에는 절대로 허용이 되지 않았고 화장기가 있는 학생들은 결코 용납이 되지 않았던데 비하면 참으로 달라진 형상 이었습니다.

자율화가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난한 가정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VIP라는 표시가 된 공항에서 만나기로 한 큰 시누이 내외와 막내 동서를 기쁨으로 만난다음 자기의 임무를 다한 저의 친정 동생 내외와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간, 물질, 정성을 다하여 함께 해준 동생 내외가 너무나 감사 하였습니다. 시누이 내외가 타고온 차 트렁크에 우리들의 여행 가방을 넣어두고, 우리들은 간편한 차림으로 공항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사위 제이미는 핸드폰에 한글 발음을 적어 놓고 배울려고 노력 하기도 하고 순간 순간 책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를 이해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머리가 백발이 된 시누이 남편과 썬그拉斯를 끼고 당당하게 늘씬한 차림으로 만나게 된 시누이, 때로는 지역 사회를 소개하는 아나운서 역할을 하는 막내 동서가 예쁜 모습으로 저에게 닥아 와서 함께 인사를 하였습니다.

공항의 대기실에서 시누이가 삶아온 달걀을 맛있게 나누어 먹으면서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시누이는 저의 딸과 정답게 이야기를 하고 상냥하고 아름다운 막내 동서는 저의 작은 시 동생인 자기 남편이 저의 이야기를 수시로 한다면서 칭찬을 많이 하였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국민학교 4학년이었을때 제가 학부형으로 시동생의 학교에 가기도 하는등 엄마 역할을 했던 일로 인한 정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탑승을 하여 제자리에 앉아 있는데 허름한 옷 차림을 한 남자 한분이 어린 아기를 허름한 띠로 둘러 가슴 쪽으로 안고서 탑승을 하였는데 어쩐 사연인지 모르겠으나 그의 처지에 따른 동정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동생이 7세된 자기 아들의 일기장에 “어떤 여자 얼굴이 너무 예뻤다. 엄마보다 더 예뻐서 눈이 특 튀어 나올 것 같았다.” 라고 솔직하게 쓴 일기장을 보고 공부에 더 관심을 갖도록

인도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막내동생 내외와 헤어진후 우리는 렌트카를 하였습니다.

사위가 운전을 하였는데 한국의 모든 상항과 신호등의 법규가 달라서 운전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용두암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12) 바닷물이 있는 곳에 용의 머리와 같이 우뚝 솟아 있는 바위를 용두암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니 사실은 용의 머리가 가려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계단을 내려 갔더니 20여명은 움직한 여인들이 해물들을 바닷물결이 넘실거리는 그 옆의 공간에서 팔고 있었고 해삼물을 시식하는 분들도 두 세사람 보였습니다.

적당히 시장기를 느낀 우리들은 길가에 있는 가게에서 오뎅볶음과 오댕 국물을 시켜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시누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을 따라 우리는 수산시장으로 갔습니다.

마산에서 살고 있는 시누이는 그곳이 다른 곳에 비하여 값이 굉장히 싸다고 하여 싱싱한 생선들과 갖가지의 물품들을

사기도 하고 시장을 헤메듯 하면서 둘러 본 다음 시장 안에 있는 특이한 식당에 들어 갔습니다.

그 식당에는 각자가 가져온 재료들을 받아 요리를 해주고 수고비로 1인당 5천원의 수수료를 받는 식당으로써 우리가 조금전에 샀던 싱싱한 칼치를 재료로 참 맛있는 요리를 즐길수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아서인지 우리가 주차한 곳은 주차장의 제일 꼭대기 까지 올라 가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밤길을 운전해야 하는 제이미는 낯설고 어두운 길에 한국 신호등의 시스템도 달라서 혼이 난듯 “다음 부터는 운전을 못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숙소는 음식을 해 먹으면서 지날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주도위 올레길 17코스에 속하는 해안 도로를 따라 푸른 바다를 감상 할수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용두암은 용의 머리를 닮은 바위라는 곳으로 화산폭발로 분출한 용암이 굳어져서 생긴 바위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던 용이 한라산 신령의 화살에 맞아 바다에 떨어져서 생겼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책 같은 니누이가 지나온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저의 시가댁에는 아들이 없어서 무당이 신에게 빌어서 아들이 났다고 하여 그 아들은 자기가 준 아들이니 댓가를 지불 해야 한다고 하여 계속 돈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

이름까지 ‘판돌이’라고 지어 주었는데 그 아들이 어릴적 그 사실을 알고 그 무당을 혼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 다음 부터는 오히려 무당이 피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난 아들은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나서 기고만장한 아들이 되고 생계를 책임지는 시어머님께서는 가게도 없는 시장에서 노점 상을 하시면서 생활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너무나 건강하시고 키도 크신 인물이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정미소에서 기계에 손이 감겨 그 일로 인하여 마취도 하지 않으신 채 손과 팔을 절단 하게 되셨는데 그후 그렇게 많은 친구들은 아버님을 슬슬 피하여 육체적인 장애와 함께 외로움이 겹쳐서 술을 과하게 드시고 집안을 온통 불안하게 하셔서 아버님만 오시면 식구들이 슬슬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노점 상으로 일하신 어머님께는 집안이 휴식처가 아닌 두려움의 장소였고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일아! 이말하면서 살자”고 호소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머님의 머리 한가운데 머리 카락이 없으셔서 “엄마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었어요?”라고 딸이 물었더니 “ 그것으로 소고기를 샀다”고 하셔서 “소고기가 어디있어요?”라고 되물었더니 “어

제 저녁 먹은 소고기 국이 그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한번은 친구 집에 갔더니, 온식구가 모여서 노래를 하고 있어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그 친구집이 부러워서 노래를 부르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3) 꿈이 많던 아들이 특허를 받아서 잘될것 같아서 시작한 사업이 번번히 실패를 하여 연탄 개스를 마시고 죽을 작정으로 자살까지 시도를 하였는데 자기 친구 황명제 대위가 신학교에 입학 서류를 접수하고 와서 “일야! 네가 목사하고 내가 장노하자!”라는 절친한 친구로 인하여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훌륭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선을 볼 때이면 말들이 많을 것이어서 어머님께서는 혼자 저를 선보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 하는 엄마! ’

‘아들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아들만 위해 사시는 엄마’ 만 선을 볼때 만나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누이들, 시동생들, 인물 집안이라는 소문이 난 그집에서 외모로 뒤 떨어진 나를 선택하여 결혼하게 한것은 ‘신앙의 집안’이고 ‘착실하다’는 소문 믿고 결혼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님의 며느리 사랑은 말 할수 없었다고 회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아구찜’을 한 솟 만들어서 마산에서 대구까지 시누이가 가지고 오도록 하셨다”라는 시누이의 말을 들으면서 이미 고인이 되신 시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듣기전 수산시장을 다닐 때 한노점상인이 문어 두 마리를 ‘다라이’에 담고서 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빨리 오라는 말을 들은 다음 움직였던 것은 그 문어 장사를 하는 할머님이 ‘문어’ 두마리를 팔면 집으로 가실 것인데...하는 안타까움을 가진 때문이었고 저의 시어머님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 것을 다른 식구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은 교회에 출석을 하시지 않으시면서 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기쁘셔서 참으로 멋진 신사복을 맞추어 주셨는데 그후 아들에게 양복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더니 “거지에게 옷을 주고 교회로 데리고 나갔더니 교회에서 거지를 데려 왔다고 박대를 하여 교회를 등진 일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첫 선을 봤을때 눈위에 미끄러져서 팔을 다친 까닭에 기브스를 하고 출근을 하였는데 선을 보러 왔던 아들이 팔을 다치신 아버님 아버님 생각이 나서 “꼭 아버님 같에서 결혼 하기로 했다”는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얼굴은 어떠나?”고 묻는 말에 “얼굴 뜯어먹고 사느냐?”라는 대답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번은 오랫동안 나를 데리러 가지 않아서 물었더니 “자꾸 데리러 가면 버릇된다”고 하드라는 말 까지 시누이 올케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오고 가면서 했던 여행길 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옛날 이야기 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엄마는 다리 아파서 못가실 것니까 제이미와 함께 한라산에 다녀올 동안에 다른곳을 다니시라”고 하여서 그동안에 우리는 낮은 곳의 곳, 곳을 다니면서 간격없는 훌륭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라산 금지구역 직전의 꼭대기 까지를 다녀온 딸 내외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만족해 하였습니다.

점심식사를 식당에서 해물탕으로 하는데 탕을 끓이는 곳에 아직 움직이고 있는 전복을 본후 저는 한숟가락도 떠 먹지 않고 밑반찬으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높은 건물들, “성정아 해돋이 먼저보고 샤픽하자” 애교만점의 막내 동서가 한마디하

는 말에 "동서도 꼬봉이라고 막 시키네....." 저의 딸보고 하는 말에 한마디 하면서 웃었습니다.
"일출봉은 해뜰때 가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였더니 "그런분들 아니시잖아요?" 딸이 웃으면서 대답 하였습니다. 제주도는 '바람' '돌' '해녀'가 유명하다는 말을 떠 올리면서 '해녀'의 모습을 볼수 없는 것이 이상 하였습니다.

(#14)' 성산 일출봉 ' ' 해뜨는 광경 '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높은 검정색 바위 산의 한면이 싹둑 자른듯한 모습이 신기 하였습니다

저는 갈대라고 생각했는데 억새라고 씌어있는 억새밭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보기 좋게 펼쳐져 있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식사는 숫불위에 고등어 구워먹으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시누이, 올케, 동서온갖 대화 나누면서 사랑의 교재를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부럽네요..." "우리 딸 건디리지 말아라..." "올케를 발로 차는 시늉도 하면서

아침식사 담당 동서가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하면서도 맛좋은 아침식사를 제공 하는 것 보면서 "책임을 맡았으면 잠 좀 덜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예쁜 사람이 멋좀 덜부리면서 해야지..."

좀처럼 못할 말도 만만한 사이이니까 웃으면서 하고 웃으면서 받는 사이인것이 감사 하였습니다.

"아침 밥을 항상 마루에 두고 가면 거지가 먹고 갔다" 시누이는 또 옛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천사예요"라고 거지는 말하드라고 하였습니다.

밀감 밭에 밀감이 풍성하여 좋았고, 억새풀이 온누리에 펼쳐져 있는 것도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한라산 등산길에 오르고 우리는 가게에서 라면을 사서 물을 붓고 기다리는데, 동서는 핫도그를 사고, 나는 떡을 사서 점심을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최영 장군 처럼 꾸며서 원나라 잔당을 물리치자는 의미로 세웠다고 하는 외돌개비 바위를 보면서 최영 장군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량조을 거리'라는 이름은 알면 좋을 거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수함 입구에서 두 장의 사진 촬영을 하게 한후 직선으로 된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데, 계단을 향한 자세로 내려가야 한다는 주의를 들으면서 조심조심 내려 갔습니다.

시누이와 동서의 부축을 받으면서 내려가는데 심폐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수심 4.05미터라고 씌어 있는 곳의 벽에 붙어 있는 산호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연 빨강색의 산호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산호'는 제가 보기에 식물 같았는데 동물이라고 하여서 사전을 찾아 봐도 동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벽과 잠수함 사이의 좁은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고기가 좋아 하는 먹이를 뿌려주는 서어비스를 보여주기 위한 것 같이 활약을 하는 직원의 모습이 너무나 안스러워 보였다고들 하였습니다.

물고기들은 새끼를 보호 하기 위하여 산호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위험도 감수하고 새끼를 보호하는 물고기들의 새끼 사랑을 알수 있었습니다.

물 깊이에 있는 바위에는 산호, 미역, 다시마, 톳이 있는 곳들을 자잘한 불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100년-300년 살아있다는 산호는 동물과 속하는데 동물들을 잡아 먹는다는 믿어지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닷속은 생물들의 서식처임을 실감하였다.

딸과 사위는 백록담 위로는 못 올라 가게 하여서 그곳까지의 등산을 무사히 하고 돌아 온것이 감사 하였습니다.

한라산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소감을 하였습니다.

(#15)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시장에서 사온 붉은색 생선 꼴라의 몸통은 소금에 절여 놓고 생선 머리와 뼈들을 무우와 함께 푹 삶은 국을 사위가 너무나 맛있게 먹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 하였습니다.

몸통이 빨간색인 꼴라? 를 구웠더니 너무나 맛이 있었습니다.

리빙룸에서 봤더니 파도가 잔잔하게 치고 용암으로 생긴 검정색의 돌들이 아름답게 주위를 장식하고 있었고 등대 아래의 방파제는 예쁘게 모양을 낸 돌들이 아름답게 둘러져 파손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관광지로써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저의 막내 시동생에게 자기의 아내가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면 “같이 살아보면 속이 시커멓게 탑니다”라고 한다는 말을 동서가 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러나 세 식구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로 같이 살면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한다고 하였습니다. 권색 유니폼에 흰부라우스, 소라색 마후라를 예쁘게 메고 참으로 친절한 언어와 행동으로 대하는 대한한공의 스튜어디어스들이 감탄하게 하였습니다.

공항에서 내렸더니 택시 기사가 우리들이 주차한 곳까지 잘 안내 해 주어 감사 하였습니다.

부산 작은 시누이 집은 산과 같은 언덕이어서, 그 곳을 운전하는 시누이 내외가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산책하러 바닷가로 나오는데 창가에 앉아 있던 작은 시누이가 놀라서 고함을 치길레 정차를 하였더니 한 할아버지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만취를 하셔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생각 납니다.

작은 시누이는 이른 아침에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밀가루 반죽한 것을 다섯으로 나누어 두 손바닥 사이에 넣은 뒤 빙빙 손바닥을 마주하여 돌리더니 동글동글하고 예쁘장한 동그라미 다섯개가 나왔습니다.

그런식으로 새알을 많이 만들어 미역국을 끓이고, 톳나물에 두부를 함께 으깬 톳나물 반찬이며 여러가지 밑반찬을 것들여 아침식사를 맛있게 하였습니다.

제가 신경쓰였던 주일 예배를 남편과 시누이가 두대의 차를 운전하여 교회로 향하는데 산과 같은 높은 곳에서 양쪽에 차들이 주차한 곳을 무사히 운전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바다의 양쪽 끝을 연결한 줄 다리 위로 운전해 갈때에 바다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탄하면서 갔습니다.

30분 소요된 곳에 당도한 우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처음 보는 분들이지만 너무나 친절하게 인사 하면서 맞이해 주었고 새신자 뿐 아니라 다른 분들 끼리도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것이 특이 하였습니다.

그곳 안내를 담당한 분에게 제이미를 생각하면서 이어폰이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연유를 묻기에 미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직분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사모’인데 그냥 방문한 것이니 소개하지 않으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류광수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그 교회는 그 큰 교회당이 꽉 찰 정도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런 교회당이 여러 곳에 지교회로 있고, 오늘 참석한 교회도 본교회가 아닌 지교회라고 하였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처의 지교회 교인들이 본교회의 예배 순서에 따라 화면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자와 헌금위원을 제외한 모든 순서가 화면을 통하여 이루어 졌고 한국어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영어, 한자가 화면에 비춰지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특이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 드렸습니다.

(정다운 모국의 친지들)

(#16) 작은 시누이가 어떤 음식이 좋으냐고 묻는 말에 칼국수가 좋다고 하였더니 두대의 차에 나누어 탄 우리는 칼국수 집으로 안내 되어 정담을 나누면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시누이 내외는 우리를 오륙도로 안내 하였는데 '오륙도'라 이름이 붙인 것은 맑은 날이면 섬이 여섯개가 보이지만 보통 때는 다섯 섬 밖에 볼수 없다고 하여 '오륙도'라 불리워 진다는 말을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읽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으나 큰 섬 두개는 확실하게 보였고 그 섬 뒷편에 작은 섬 네개가 가리워져 있는 것을 전시관에서 사진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준비해 준 버선을 신고 바닥이 유리로 된 전망대로 걸어 갔습니다.

섬의 아랫부분은 입구에서 끝나고 그 아랫부분에 연결되어 앞으로 툭튀어 나온 부분을 유리로 덮어서 그 위를 걸어 가는데 유리바닥 저 아랫편에 바위와 물이 보여서 조금은 두렵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곳 유리로 만든 빌딩에는 세계정상들이 모였던 회의장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각국 정상들이 앉았던 자리마다 어느 나라의 누구가 앉았다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회의를 하게 된 것에 따른 자부심이 그 회의장을 관람하면서 느꼈고 무엇이나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작은 시누이 내외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휴일인데 피곤 하겠지만 정성을 다하여 안내 해 주심을 감사 하였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맞이한 작은 시동생 집으로 가면서 "어떤 음식이 좋으시냐? 고 묻는 말에 "아구찜" 이라 대답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여 처음으로 안내된 곳에서 남편과 함께 먹었던 아구찜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작은 시동생 내외와 아들인 훈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와 한자리에 앉게 되어 감개 무량 하였습니다.

그 작은 시동생이 국민학교 4학년 이었을 때 제가 결혼을 하였고, 작은 시동생의 학교에서 학부형을 뵐시고 오라는 통보가 있으면 제가 참석했던 관계로 남다른 정이 있는 편입니다. 사장으로 있는 시동생의 얼굴만 봐도 늠름하고 화통하고 시가의 모든 분들 같이 키도 크고 인물이 훤출 하였습니다.

시동생은 택배를 운영하는데, "다른 분의 3,4배의 실적을 올려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고 큰시누이가 말하는 것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타이어 폐품으로 길 바닥을 깔았는 도로는 미끄럽지도 않고 폭신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국제시장을 다니면서 떡볶이도 먹고 유리 아파트와 으리으리한 비치 호텔도 구경하였는데 제 철에는 1백만 인파가 모인다는 '해수욕 장' 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돌길을 걸어서 내려 왔다는데 지금은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색등대도 있었고 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도 특이 하였습니다.

황옥 공주 인어상(1974년에 설치), 동백섬, 2005년과 14년에 아시아 정상회담이 있었던곳,
조개 껍질로 그린 그림, 군사기지 장소, 동백섬
작은 시동생 집에서 하룻밤을 지나면서 듣지도 못했던 여러가지를 보고 경험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 하였습니다.

(정다운 고국의 친지들)

(#16) 작은 시동생 집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우리는 동서가 만든 김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딸과 사위 대동하여 작은 동서와 함께 네사람이 산책을 하면서 낙동강을 지나니 감개 무량하였
습니다.

6.25사변때 인민군이 넘어온 낙동강이어서 옛날을 상기하게 해 주었습니다.

탐스러운 배추, 무우밭을 지나면서 쉴사이 없이 수고하는 농부들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10,600평의 유채꽃(기름, 식용유) 밭은 유채꽃이 절정일때는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관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풍차 한대가 밭가운데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일홍 축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 넓은 들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수입을 올리는 것이 감사하였습니다.

보리, 백일홍, 일년초, 억새풀밭, 꽃 축제, 원두막, 관광지 답게 밭들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꽃을 심어서 꽃 관광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릴적 외갓집을 오갈 때 봤던 원두막도 보았습니다.

밭 모양도 한반도 모양으로 만든곳도 있었습니다.

억새와 갈대를 햇갈렸는 갈대같이 생긴 것을 억새풀이라고 쓴 간판이 있어서 억새풀이라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제 7공구라는 표시판도 있었습니다.

남강과 낙동강이 하나된 강

비둘기가 밭의 곡식들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집 잔디밭에 잔디씨를 뿌렸을 때 참새
20여마리가 그 잔디 씨를 먹기 위하여 앉아 있었고, 배설도 하여 지저분하게 만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낮에는 토끼가 심심찮게 게 초록색의 잘 자란 잔디를 먹는 것 보면서 안타까워 했었던 일이 생
각 났습니다.

어렸을 때, 논과 밭 한 가운데 세워두었던 허수아비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처럼 만들어서 새들을 속이기 위해 쓰였던 허수아비도 세워진 의미가 있었음을 생각해 봤
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 했을때 남녀를 막론하고 시골이나 도시에서 얼굴의 눈 부위만 내어 놓고
마스크를 한 분들을 만나면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힘든 마스크를 왜 저렇게들 이용할까?

자외선이 그렇게 싫은가? 하고 생각 했는데 미세 먼지와, 한때 중국 쪽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나돌아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말을 듣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논밭의 양쪽 도로 위에 비닐을 깔고 벼들을 펼쳐서 말리고 있었습니다.

유채꽃 길, 억새 등 꽃이 만발 할 때는 관광객이 넘친다고 합니다.

주로 밭이라고 하면 쌀, 보리, 콩 종류를 떠올렸는데 이렇게 남아도는 밭을 이용하여 관광사업을
하고 경제성장을 하기 위하여 신경을 쓴 관계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고국을 바라보면서

저는 감사가 넘쳐 났습니다.

시장기를 느끼면서 들어 갔던 음식점에서 모처럼 비빔 냉면을 먹었더니 입맛이 깨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섯 사람이 한 차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17) 자연적 뒷 좌석에 네사람이 앉았는데 작은 동서는 동승 하는 것 만이라도 기분이 좋아서 서로가 면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애쓰면서 정답을 나누게 되어 감사 하였습니다.

바닷속 48미터라는 표시판이 있는 곳을 통과 하면서도 해저라고는 생각 안될 만큼 튼튼하게 터널을 만든 곳을 통과 하였습니다.

단감 나무에 노랗게 익은 단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그곳을 감나무 동네라고 부른다고 하는 시누이의 말을 들으면서 길가에 맛있는 단감을 팔고 있는 상인들의 단감을 먹고 싶었는데 시누이는 우리집에도 단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제도에 들어 와서 불갈비 식당으로 들어 갔습니다.

큰 시동생 딸 윤경이 내외와 두 아들들이 치과의사를 하는 아빠와 함께 들어 왔습니다.

숯불 위에 불판을 얹어 놓고 연기를 빼내는 연통을 바로 위에 얹어 놓는 것을 처음 목격 하였습니다.

선량하게 보이는 남편을 보면서 어릴적 고생 했던 삶을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통하여 해결해 주심이 감사 하였습니다.

우리는 50평이 되는 너무나 훌륭한 아파트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방금 식당에서 불갈비를 먹고 왔는데 잠시후 조카 사위는 다시 양념치킨을 사 왔습니다.

우리들의 배는 한정도 없는 듯 맛있게 먹으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굴이 희고 빽빽한 조카 딸은 두 아기를 키우는 엄마 같지 않게 너무나 상냥하고 아름다운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감사 하였습니다.

돛을 갓 지난 아들이 얼마나 활동이 왕성 하던지, 제가 잠시 아기를 안고 있다가 다칠까봐 저의 딸에게 인계를 해야 했습니다.

두아기들은 손님이 와서 기쁜 듯이 리빙룸의 이곳, 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늦은 밤까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엄마의 뒷편에 아기가 달리듯이 천으로 만든 띠를 둘러 매었는데 요즈음은 얘기를 엄마의 가슴쪽으로 오도록 하여서 얘기도 편안하고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수 있게 만들어서 서로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방들과 넓은 마루에 폭신한 스폰지와 요를 깔고 숙면을 취하였습니다

아침에는 경상도식으로 육계장에 콩나물 넣은 것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조카 사위는 치과 의사로써, 오후에는 환자를 봐야 한다고 오전에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50만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는 현대 조선소 앞을 지나가는데 오토바이들이 헤아릴수도 없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발 그 조선소가 잘 되어야 할텐데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지나 갔습니다.

버스도 근로자들을 태우고 다니는듯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으니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곁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였습니다.

"청년 결백하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김영삼 대통령과 저의 남편은 대통령이 되시기 직전 몇 차례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는데,

사모님께서는 너무나 겸손하고 저희 시조모님께 어찌나 깍듯한 예의를 차렸던 모습이 저의 눈에 생생합니다.

붓 글씨를 즐겨 쓰시는 김영삼 대통령의 족자는 저희 시동생들 집과 시누이 집들에 모두 걸려 있었습니다.

(#18) 완벽한 사람은 없고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국회의원 당시에도 유년주일 학교 교사로써 활동하셨고, 주일이면 현금 위원으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도 참 좋습니다.

시누이 내외와 동서의 생각도 저와 같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생가는 방5개가 있는 기와 집으로써, 10여개의 크고 작은 장독들이 있었고, 옛날 두레박으로 길어야 했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기록 전시관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로 관람치 않았습니다 만 일국의 대통령의 생가로는 너무나 단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내외의 실물 처럼 만든 곳에서 가족들의 권유로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매미 섬으로 갔습니다.

한 할아버님이 폭풍에 다 쓸려 간 땅을 친히 돌을 쌓아 만든 성이라고 하였는데 그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성을 계속 쌓고 있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바다위에는 둑둥 떠 있는 작은 물체들이 많이 떠 있었는데 그것은 '양식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닷밑에 그물을 쳐 놓고 고기를 기른다고 하는데 '그물'이 있는 곳을 표시하기 위하여 자그마한 물체들을 둑둥 띄워 놓은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얼핏 100여개의 둑둥 떠있는 물체들이 있는 아랫편에 그물들이 있고 그물 안에서 고기들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불가사리들은 물고기들을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가제북로- 리조트(호텔, 콘도) 1개월

너무나 크고 웅장한 건물이 바닷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 타이어를 재료로 만들었다는 새까만 상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건물 안의 가게 직원들이(화장품,가게) 한결 같이 너무나 친절 하였습니다.

바다 저 멀리 검정색으로 보이는 섬들, 저는 그 한쪽편에 있는 방파제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방파제는 등대의 밑부분에 주로 세워져 있었는데, 시멘트로 평면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물이 곳곳에서 흘러 갈수 있도록 네뿔이 달린 것 처럼 만든 것의 뿐이 네개인지? 세개인지가 궁금하여 곁으로 가서 확인을 한 결과 시멘트를 네뿔이 나도록 만들어 한 뿐은 움직이지 않게 밑으로 깊이 박고 세 뿐은 노출된 상태로 물이 그 뿐을 치고 흘러 갈수 있도록 하여 등대나 다른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곳의 물이 너무나 맑았습니다.

(남자섬)

저는 커피가 흰색이 되도록 가루 프림을 많이 섞어 먹어야 맛이 좋습니다.

커피 2스푼, 가루 프림 3스푼의 비율로 먹었는데 한결 같이 가루 프림이 좋지 못하다고 하니 버리기 싫어하는 제가 미국에 가면 생각할 필요 없이 버려야 한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당이 높은 몇 몇 분들이 발가락, 손가락을 잘랐던 이야기등 저로서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행기간에도 앉았다가 일어나면 왼쪽 무릎이 너무나 아파서 미국 교포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간다는 말도 들어서 은근히 치료를 받고 갈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할수 없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 였습니다.

좋지 못한 것은 시정해야 한다는 결단이 실천 될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정다운 모국의 친자들)

(#19)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나올때는 경비하는 분이 허리를 푹 숙이고 인사를 하여서 그것이 자의이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규정상 억지가 된다면 참으로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곳에는 대우조선 간판도 보였는데 대우나 현대나 그 넓은 지역에 자리 차지하고 있는 조선업이 제발 발전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간단한 저녁식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 왔습니다.

딸 내외가 예약해 둔 숙소의 규모가 어마어마 한 것에 놀랐고, 6명의 숙소 답게 방이 4개, 넓은 리빙룸에 우리들의 여장을 풀면서 딸 내외가 고마웠습니다. .

딸내외가 양념 닭고기와 튀김 닭 고기를 사 왔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으로 떼울 생각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식탁의 공간을 만들려고 식탁을 조금 움직였더니 '와장창' 식탁이 분리 되어 그릇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였습니다.

우리는 사고의 현장을 그대로 둔 뒤 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대리석 판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은 딸이

"사람 다친 것을 물기 전에 식탁 염려를 한다"고 나무랐습니다.

그 식탁은 식탁의 다리에 흠을 파고 그냥 대리석 식탁판을 구멍에 끼워 얹는 식의 조립식 식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잘못 했으면 어머님께서 다칠뻔 했어요" 즉시 찾아온 주인에게 말하면서 현장을 보여 드렸더니 문제의 대리석 식탁은 가져가고 다른 전통식 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대 소동이 난후 예정했던 라면을 안 끓인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하면서 닭고기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좀처럼 피곤함을 내색하지 않고 우리들을 잘 안내하던 딸이 "오늘은 너무나 피곤해서 쉬어야 겠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 가고 자연적 우리 모두 일과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시누이의 밭을 둘러 보았습니다.

시장에 팔 것도 아닌데 개인이 소유하는 밭으로는 대형의 밭이었습니다.

왠 채소들이 그렇게 많은지...

시누이의 아들 철호는 엄마에게 "농사를 자꾸 지으시면 시멘트로 발라 버릴 것이라"고 경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엄마가 다 소화 시키지도 못할 농사를 위하여 수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한 말이었습니다.

큰 비닐 하우스 안에는 싱싱한 배추들과 한쪽가에 이미 추수한 들깨 대 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밭에는 구멍을 뚫은 비닐이 덮여 있었고 그 구멍 마다 초록색의 채소들이 모습을 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제가 묻는 것을 일일히 대답하던 고모부는 "나는 갑니다"라고 하면서 길 건너 편에 있는 밭으로 가셨습니다.

일하러 가시는 시간인 것을 모르고 제가 일일히 신기해서 물었던 것인데 미안한 생각이 났습니다.

피망, 토란, 브로커리, 아침식사는 닭고기를 푹 삶아서 소금과 후추에 찍어서 먹었는데, 그런식

으로는 한번도 먹지 않았으나 시도를 해보니 맛이 있었습니다.

그 닭고기 국물에 야채를 넣어서 국을 함께 먹었습니다.

"언니가 갈비 양념한 것이 너무 맛있었다"고 하면서 갈비를 양념하도록 맡기고 저의 딸 내외와 시누이는 미용실로 향하였습니다.

(#20) 모두가 함께 그 갈비를 맛있게 먹을 것을 상상하면서 오랫만에 옛날 솜씨를 발휘하여 준비를 하고 고모부가 밭에서 캐온 고구마를 삶고 저의 손길이 바빴습니다

외출 했다가 돌아온 저의 시누이는 빈 우유 팩 안에 밭에서 기른 땅콩을 넣어서 마이크로 웨이브에 돌렸더니 땅콩이 맛있게 구워져 나왔습니다.

고구마와 고기 수육을 함께 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갈비는 다음을 위한 저장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사를 한후 우리는 진천역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여행을 함께 하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시누이 내외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진천역에서 ktx에 승차 하였습니다.

그동안 적당한 기온과 맑은 날씨로 인하여 즐거운 여행을 하였었는데 기차에 오른후 비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위가 저의 무거운 여행가방을 기차의 선반에 올려 주는 등 수고를 하였습니다.

4시간의 기차여행도 순간인 듯 기내에 있는 TV로 뉴스를 지켜 보면서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시간에 다시 햇빛이 빤짝 빛났습니다.

기차가 정거한 뒤 사위는 저의 여행 가방을 선반에서 내린 후 기차역 문밖으로 내렸는데 어떤 여인이 저의 가방을 집어 들고 움직이기에 놀라서 봤더니, 저의 딸의 연락을 받고 기다리던 언니의 딸 향이가 저의 가방을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처음 대면한 조카 사위는 4년간 공주 국립대학에서 첫 교수직을 하였다고 소개 하였습니다.

동해의 관광을 마친 우리들은 이제 서해쪽의 공주로 안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을 함께 할 계획이었으나 단풍은 이미 절정을 넘었고 관광객들이 너무나 붐벼서 길에서 시간을 모두 허비하게 된다는 정보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한반도 지도를 그려 가면서 우리가 여행 했던 부분과 여행 하게 될 위치를 알려 주었습니다.

저의 조카 내외의 안내를 받아 뷔페식 한식 식당으로 갔는데. 지금까지 곳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였지만 취향에 따라 식사 할 수 있는 뷔페식 식당에서 식사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어느 사이에 날이 어두워 졌는데 조카 내외는 우리를 한강 유람선을 타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한강에는 31개의 대교가 있다고 하는데,

한강 가에 밝은 전등을 소재로 십여개나 됨직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주위를 장식해 두어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트리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가 유람선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잠수교에는 다리가 아래 위로 구분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아랫편의 다리가 물에 잠기게 되어 윗편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여서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여 잠수교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강 주위에 웬 고층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지.....

낮이면 별로 의식하지 못했을 것인데 밤이어서 그 고층 건물들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으니 그 넓은 한강 주위를 환하게 불빛으로 수놓여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지나 갈때 물줄기가 내려와서 물 쇼를 즐기게 한것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조카 사위는 이 한강의 야경을 보여 주기 위하여 지난 주에 이미 답사를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곳보다 탑승 장소가 달라진 것을 답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답사 까지 했던 내외의 정성이 너무나 감사 하였습니다.

(#21) 한차례 유람선 밖에 전개되는 경치에 관심이 쓸려 있었는데, 유람선 한 복판의 커텐이 열리더니 오르간과 색스훈, 심벌즈의 연주자들이 등장 하였습니다.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 아름다운 연주를 하였고 특히 색스훈 연주자는 생일을 맞이한 손님들과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한 손님들을 손으로 표시하게 하더니 그 손님들 앞에서 특별 연주를 하였는데 오랫동안 숨도 쉬지 않고 혼신을 다 한다는 느끼이 들도록 연주를 하여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조카 내외의 아파트로 안내를 받았는데 아파트의 규모도 크고 내부가 너무나 훌륭하여 한국의 생활 수준에 놀랐습니다.

이튿날 우리들은 이름으로 만 들었던 거제도로 유람선을 타러 갔는데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유람선 티켓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선장은 "배가 기울어 지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앓게 안내하였고 응급시를 위하여 각 좌석 밑에 있는 구명 조끼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해금강'을 2시간 20분 동안 예정으로 가게 되며, 외도에는 800여종의 아일랜드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돌섬'을 지나가는데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돌섬의 꼭대기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 신기하였습니다.

몇 년 전 성지순례를 했을때 안내자의 말씀에 따르면

"바위에 자그마한 금이 난 곳에 나무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자라서 바위 위에 뿌리를 박아서 나무가 자라게 된다"고 안내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떠 올라서, 그 소나무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들은 배의 좌우 현측으로 나가서 관람을 할수 있었는데, 유람선이 쏜살 같이 달리는 까닭에 물이 좌우로 갈라지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바다 밑에 왔다 갔다 하는 고기들의 모양도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에는 유람선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찰을 가슴에 부착 하도록 나누어 주면서 제한 시간을 알려준 뒤 유람선에서 하선 하도록 인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내린 섬에는 산길의 좌우에 예쁜 나무들이 꼭자 있었는데 자연적인 나무였지만 한그루, 한그루에 정성이 꼭 차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자잘한 대나무들도 옆으로 퍼지겠끔 유도하면서 높이가 고르고 미적으로 훌륭한 대나무 숲이 되도록 신경을 쓴 표가 여실 하였습니다.

선인장 열매도 주렁주렁 맺혀있고 예쁜 선인장 꽃들과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산 언덕에서 내려 가는 곳 비탈에 어릴 때 놀았던 '기차 놀이' 하는듯 몇 아이들이 쭈그리고 굴 밖으로 통과하는 모습 '씨름하는 곳' '엄마 등위로 올라가 엄마의 길다란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아이' '아담과 하와가 엎드려 있는 모습' 등 비스듬한 산비탈의 중간 중간에 만들어져 있는 조각들이 유년시절의 기억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비스듬한 놀이터의 끝부분 한가운데에는 황소 두마리가 양쪽에 앉아 있는데 그 등을 편편하

게 만들어 우리들이 얹어 쉴수 있는 의자 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치 했드라면 한갓 보잘것 없는 산에 불과 한 것을 정성을 들여 가꾸어 놓으니 이렇게 훌륭한 관광지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의 수준 높은 관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고국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였습니다.

(정다운 고국의 친자들)

(#22) 사랑의 언덕에 오르니 대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어서 선풍기도 없었던 어릴적 시절이 저의 기억에 떠 올랐습니다.

저의 이웃에 전라도에서 이사온 분이 부채공장을 하였는데 길가에 통큰 대나무들을 쌓아 놓고 직공들이 대나무로 부채살을 만들어 종이로 부쳐서 만든 부채가 기억에 떠 올랐습니다.

입장료 11,000원 , 배삯 19,000원이 비싸다고들 하였지만 저는 너무나 감명 깊었던 관람 시간이었습니다.

예술적으로 가꾼 나무들에 투자된 정성들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계단과 관광 구역의 길도 너무나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해금강에서 굴처럼 되어있는 바위산 입구 까지 운행을 하여서 자연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선하였다가 다시 승선 하였을때는 우리의 가슴에 부착 했던 명찰로 신분증을 대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들은 6.25 사변 당시의 포로 수용소 관광 안내소로 72,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갔습니다.

사람의 모양과 꼭 같이 만든 동상위에 군복 입힌 포로들을 실물과 같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포로들의 일상 생활은 밥하고, 빨래하는 것과 훈련 받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 하였던 국가들의 국기들이 계양되어 있었습니다.

반공포로들 학살 , 3.8선 지뢰 등 1950년 6월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들이 3.8선 전역에 대대적으로 기습 공습하는 장면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국민학교 시절에 군인들이 학교의 운동장에서 훈련 받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자란 저의 어린시절을 되돌아 보게 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는 '모노레일'에 탑승 하였습니다.

놀이 공원을 연상하게 하는 '모노네일'이 산길을 올라 갈때에 기분이 절정인 막내 동서는"성정아 자주 만나자" "우리 자주 만나자 "라고 앞좌석에 있는 저의 딸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위에는 살찌지 않은 나무들이 쭉 곧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아랫편을 내려 봤더니 좌우의 곳곳에 산 모양 같이 돌들을 쌓아 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1,200미터 , 1,400미터, 1,500미터, 1,600미터 지상에서 얼마나 높이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표시판도 있었습니다.

산 정상의 모노레일 정류 장에서 내렸더니 산 정상 까지 계단이 있었으므로 딸과 사위는 그 정상까지 오르고 고모와 동서 함께 우리들은 약도를 보면서 대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곳에 있는 표시판에 의하면 1 문제인 대통령 생가 2 거제현관아 3 거제 면사무소 4 자연생태 테마 파크 (거제시 농업개발원) 5 산낭산 6 미륵산 7 산달도 (남해안의 숨겨보물) 8 한산다 (한산대첩 1592년) 9 용 초소 (6.25 전쟁 포로 수용소) 추봉도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 봤더니 샷하얀 색의 아파트들이 직선 처럼 쑤아 있었습니다.

약간의 단풍들이 들고 있었습니다.

꼬불고불 산길을 내려왔더니 조카 딸이 아기와 네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족할 것인데 번번히 우리를 맞이 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읽혀져서 감사했습니다.

조카 딸은 우리에게 해물탕 집으로 안내 하였습니다.

(#23) 식탁위에는 갖가지의 밑 반찬들이 있고, 큰 남비에는 각종 해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종업원은 재료들이 싱싱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30센티는 흔직한 살아 있는 문어를 높이 치켜 들면서 냄비에 넣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해물탕에 입맛이 없었고 저의 딸도 "문어가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 했습니다. 그 며칠 전에는 음식점에서 해물탕을 시켰는데 전복의 한면에는 껍질이 붙어 있고 다른 한 면에는 살아 있는 전복이 꿈틀 거리고 있어서 그 해물탕을 한 숟가락도 먹지 않고 오로지 밑반찬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생선 종류라도 살아 있는 것을 먹기에는 부담이 되는 편인데 오래 전 어느날, 어떤 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생선의 꼬리가 꿈틀하는 것을 보았던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사위가 계산대로 갔더니 윤경이가 이미 계산을 하였다는 말을 들으면서 고마움을 느꼈던 윤경이와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뚱보 할매 김밥 집'이라는 간판이 있는 식당으로 들어 갔습니다

식당 안 벽에는 집 주인인 뚱보 할머니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김밥이라고 하면 다양한 재료로 다양하게 색갈을 한 재료를 밥위에 얹어서 만든 김밥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번에 몇차례 먹었던 김밥은 저의 손가락 크기와 두께로 안에는 흰 밥 만을 넣고 오뎅이나 김치를 껏들여 먹는 김밥 대접을 몇차례 받았습니다.

시누이는 "이집 김밥이 진짜"라고 뚱보 할머니 집의 음식 솜씨에 감탄을 하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우리들은 산골길을 둘러 저의 남편의 산소를 찾아 갔습니다.

남다른 꿈을 안고 이민길에 올랐던 남편은 이민 초기의 어려움을 한껏 겪으신 후 자신이 저서의 저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출판사와의 만남을 위하여 건장한 모습으로 출국을 하였다가 뇌출혈로 소천을 하신 그 때를 회상하면서 우리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통도 크고 꿈이 많았던 저의 남편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 품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대로 저의 딸과 아들들이 의대와 코넬 대, 밥대를 나오게 하셔서 꿈을 이루게 하심이 감사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법대 합격이 결정 된 후 제일 먼저 교회로 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전화 해왔던 일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졸업생들이 한마디씩 기록한 졸업 앨범에 고백한 대로 신앙 회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모두가 둘러 있는 곳에서 제가 대표 기도를 하였습니다.

가족들의 신앙이 더욱 더 자라기 원하는 저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단풍 나무들이 샛노랗게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잎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릴적 그 나뭇잎을 책 속에 넣어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 났습니다.

꽃 축제를 한다고 거리의 한복판에 언덕처럼 화분대를 만들어 노란색 국화 화분들을 진열해

놓아서 너무나 보기에 좋았고 평소에는 없던 가게가 5일장이 되면 농민들이 자기들의 상품들을 가져 와서 판매를 한다는 5일 장장날을 볼수 있었습니다.

. 그 5일 장날을 통하여 물건을 사고 팔수 있으니 서로가 꼭 필요한 장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간 곳은 시부모님의 묘소였습니다.

그 시부모님의 묘소에서 제가 울먹이는 모습을 본 딸이

“엄마 왜 그러세요?”라고 물었습니다.

(#24) “어머님의 일생을 생각하니 자연적 눈물이 난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의 시누이는 “아버지가 더 불쌍하다”라고 말을 곁들였습니다.

시 아버님께서는 젊으셨을 때 건장하고 인물이 훤칠하여 친구도 많으셨는데 방앗간의 기계에 휘말려서 팔이 절단된 후 육체적인 고통과 아울러 친구들이 아버님의 곁을 떠나버린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술로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저의 시어머님께서는 “일아! 이 말하고 살자”라고 하셨다는 말이 기억에 떠올라 자연적 제가 울먹였습니다.

산소에서 내리막으로 내려 오는 길을 저의 사위가 부축 해 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도로변에는 비니루 두루마리 둉치들이 밭의 이곳 저곳에 놓여 있어서 추수 철 임을 알려 주는 듯 하였습니다.

나락들이 차도에 늘어 놓여져 있었습니다.

산두개를 깎아 저수지로 만들었다는 저수지에 물이 가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저의 시조부모님의 산소를 찾아 갔습니다.

시조모님께서는 너무나 희생적인 삶을 사셨고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조부님과는 뵈온적이 없었지만, 조모님께서는 제가 이민 직전 까지 뵐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손부가 어디에서 올찌? 아시지도 못하시면서 문 앞에 서 계시면서 기다리실 정도로 저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민길에 오를때 저의 고모님께서 “지금부터는 엄마를 내가 모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공항으로 향하는 마지막 시간에 ‘미니 밴’ 안에 있는 저를 향하여 “손부 얼굴 한번 더 보자”라고 흐느끼셨던 음성이 지금도 저의 귀에 들려 오는듯 합니다.

우리는 큰시누이의 집으로 안내 되었습니다.

시누이의 농장이 너무나 넓고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크고 흰돌들이 담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집앞과 밭 사이에 두줄로 놓여 있어서 더욱 보기에 좋았습니다. 석류, 매실, 백일홍, 배, 감, 시금치,, 두릅나무, 사과, 잔파, 마늘, 배추 비닐 하우스 안에도 말린 식품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마, 무우, 고추 (빨간 고추)들이 탐스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희고 큰 돌담사이에 호박넝쿨이 예쁘게 둘러져 있었습니다

실내에는 큰 모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리빙룸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텔코트를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있어서 그리움을 더 하였습니다.

언니의 딸(향이) 내외가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를 자기 엄마 처럼 대해 주는 느낌이 들었고 “이모”라고 부르는 소리가 지금도 저의 귀에 들려 오는듯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대면하면서 엄마 생각을 하게 하는 듯하여 미안한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천국에 가신 언니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조카의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 나서 조카 내외가 준비한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마음을 헤아린 조카 내외는 제가 살았던 천호동 까지 직접 운전하여 안내 하였는데 일대가 너무나 바뀌어 어렵듯이 짐작은 되는 곳도 길이 넓혀지고 다른 건물들이 지어져서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저의 어려웠던 지난날을 되돌아 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더욱 감사 하였습니다.

(정다운 모국의 친자들)

(#25) 언니의 딸 향이 내외의 안내를 받으면서 제가 도미 직전까지 살았던 천호동을 방문 하였습니다.

저의 딸이 다녔던 국민학교를 찾아 갔습니다.

다행히 그 교정과 운동장이 아직 그자리에 있는 것을 다행하게 생각 하였습니다.

"그 때는 운동장이 너무나 넓어 보였는데 이렇게 작다"고 하면서 "그 때는 어린 눈으로 봐서 크게 보였던 것 같다"고 딸이 감격한 듯 말 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이 도미 직전까지 목회 하셨던 교회를 찾아 가 보았는데 그 입구 까지의 골목은 그대로였으나 언덕에 붉은 벽돌로 2층 교회를 건축하였었는데 그 언덕위의 교회는 사라지고 그 옆에 커다란 다른 교회가 자리잡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 하였습니다.

제가 걸어서 다녔던 시장의 입구는 알겠는데 옛날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곳이 일대 변화가 된 듯 새 건물들이 서 있어서 발전한 모습이 보기 좋았고 기뻤습니다.

천호동 일대에 '88년도 올림픽 선수촌이 있었고 올림픽 메달 선수들의 이름이 길이름이 되도록 하였다는 말을 들으면서 나라를 빛냈던 선수들의 의욕을 높여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연적 이민 초기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도미한 직후 대륙 횡단 했던 이야기, 카나다의 저의 제자가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인정 있게 하였다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엄마 카나다의 유미 엄마는 어떻게 지나세요?"

딸이 궁금한듯 물어 오는 말에 "내가 전화를 잘 안하니 자연적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였더니 "엄마는 왜 전화를 그렇게 안하세요?"라고 추궁 하듯 하는 말에 그 제자의 식구들이 저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부터는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이면 비가 오고, 내리면 화창한 날씨로 바뀌는 것을 감사 하였습니다.

휴게실에서 팥빙수를 샀는데 아랫부분은 인절미 같이 보였고 윗부분은 초코렛이 잔뜩 발린듯 하여, 인절미는 괜찮을 것이라고 한 스푼 떠서 입에 넣었다가 그것이 빙수인 것이 느껴져서 뱉지도 못하고 쩔쩔 메었습니다.

우즈바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노동하여 자기 나라에 현금으로 보내는데 그들은 자존감이 낮다고 합니다.

암투병 할때 고생하셨던 엄마를 회상하는 향이.....

우리들은 '공주'에 들어 섰습니다. 탕수육 시키고 국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금강' 수력발전소 설치하느라 발전소 흔적은 있었지만 발전소 역할은 못하고 흔적만 남아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관광버스 10대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곳에 우리도 주차를 하였습니다.

'무열 왕릉'을 관람하는데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은 이미 밭굴하여 박물관에 비치하고 겉모양은 옛날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소개 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이라고 안내 하였습니다.

그 건물 내부에서 어린아이들을 포함 관광객들이 대여 해주는 한복을 입고 분주하게 돌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운 생선 , 구운돼지 불고기를 맛있게 먹은후 향이 내외가 예약해준 호텔에서 숙면을 취 하였습니다. 시간, 돈, 정성 아낌없이 바치는 향이 내외에게 감사 하였습니다.

(#26) 저의 분에 넘치는 호텔에서 숙면을 취한 것이 너무나 감사 하였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호텔에서 나와서 음식점으로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이 손님으로 봄볐습니다. 수원은 조카 사위의 고향이고 우리가 찾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자주 했다고 하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아서 인가? 아니면 그 음식점이 너무나 유명하여 일까? 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평소에 먹고 싶었던 가락국수, 다른 곳에서는 만족을 주지 못했던 국물과 쫄깃한 면, 콩나물 국밥 등 마산의 원조 아구찜 음식점 같이 밖에서 대기 하면서 기다리다가 자리가 나면 들어 가야 하는 곳이기에 그 음식들을 인정 할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주시는 문화체육 관광부가 지정한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라고 했습니다.

산정상의 야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산정상에 고궁같은 느낌이 드는 건물이 있었고 그 주위를 전구로 밝혀 놓아서 관광을 마치고 내려 온 후 올려다 보는 느낌이 더욱 좋았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왔더니 쏘나기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맑고 기온도 적당한 날씨였는데 어떻게 하나? 염려를 하였는데 우리가 가야 할 시간에 해가 빤짝 비추어서 너무나 감사 하였습니다.

저의 언니의 딸 향이는 향이는 국민학교 4학년 반을 담임하여 남다른 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 하였습니다.

자기 반 학생들을 팀별로 집으로 초청하여 상담을 하니 반 학생들이 너무나 좋은 반응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가를 이용하여 키타를 배우는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이의 아파트는 15층에 있고 34평이라고 하였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였고 너무나 실용적으로 지은 아파트였습니다.

설악산 단풍 기회를 놓진 우리는 한서방의 아파트에서 아래를 내려 봤더니 그 많은 나무들 잎이 빨강,노랑 너무나 화려한 단풍이어서 다른 곳에 단풍 구경을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서방은 우리를 수원 왕갈비 집으로 안내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수원에서 소를 잡아 그 갈비를 왕에게 바쳤다고 하였습니다.

숯불위에 석쇠를 얹어서 구워내는 왕갈비의 맛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돌솥밥을 하여서 그 밥을 먹은뒤 돌솥에 물을 부어 옛날에 먹던 승늉 같이 만들어 주어서 새로운 느낌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에 있는 박물관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그 박물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모가 지은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한서방의 큰 아버님께서 소유한 땅이 그 곳에 포함되어 있어서 감개 무량한듯 말했습니다.

초롱불, 한복 차림의 직원이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고 있었습니다.

가마, 옹기를 만드는 과정, 붓글씨

어릴때 샷노란 은행 잎들을 책 속에 넣었던 것 회상 하게 하는 은행 나무들

30일 가까이 구워서 만든 옹기 같은것, 새끼 꼬는 곳, 지게, 한복 입고 지게 진 등받이 .남자, 마루, 부엌, 뒷간, 장독대, 소쿠리, 장작, 고추, 옥수수, 방앗간, 풍구, 방앗간, 낮잠 자는 높은 방, 온돌, 한

서방은 그 민속촌이 있는 곳이 큰아버지가 있던 집터였는데 보상 받고 이사 했으나 큰아버지의 장듯대는 그대로 있고 그곳에 있는 감나무도 그 때 그 감나무 같다고 회상 하였습니다.

그 민속촌은 정영삼씨가 주인인데 고 박정희, 육영수 사촌이 혜택을 보면서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27) 한 곳에 번데기 5,6개가 흩어져 있기에 그 곳을 주시 하였더니 관계자는 우리에게 실을 뽑아내는 광경을 보여 주었습니다.

뽕나무에서 따온 누에들이 담겨있는 그릇에서 누에들을 실 뽑는 물레에 걸더니 빙빙돌려 누에 고치에서 실이 뽑아져 나왔습니다.

(50다닥) 실이 뽑혀 나온후의 번데기 몇 마리가 그릇 옆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실이 명주가 되어 삶아서 치실을 만들기도 하고 장기를 수술 할때 쓰이는데 그 실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나온 넓은 마당에는 한 사람의 한복 입은 남자 사회자가 있고 마당에는 고유의 남자복장을 한 분들이 달리는 말 위에서 앞뒤로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상상이외의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29) 두마리의 달리는 두 마리의 말 위에 일어선 두남자 사이에 다른 남자가 서있는 재주를 보여 주었습니다.

한사람은 말에서 떨어진 다음 달리는 말위에 올라 타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다가 성공하는 것 등 제가 어릴적 봤던 서커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곳에는 전통 혼례식을 올리는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터 식을 진행하는 과정을 모두 보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비가 그쳐서 이모든 행사를 관람 할수 있어서 감사 하였습니다.

한서방이 그렇게나 대접하고 싶어 했던 갈비 구이집에 들어 가서 직원이 민첩한 솜씨로 구워주는 갈비구이 와 밥과 된장찌개 참으로 넘치는 환영과 대접을 받으면서 감개 무량하였습니다.

컴컴한 밤길을 운전하여 우리의 다음 숙소 까지 안내해 주고 돌아 가는 향이 내외의 친절함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교통이 편리한 서울역 근처에 있는 곳에 숙소를 정하였습니다.

롯데마트로 갔더니 얼마나 으리으리한 건물에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감탄에 감탄을 연발 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롯데마트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한국 롯데마트는 규모에도 그렇고 진열된 상품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라면 코너에서는 수시로 소리를 치면서 손님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식당에 앉아서 멸치 칼국수와 매운 국수를 시켜서 먹었는데 참으로 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경복궁'으로 향하였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들은 한복을 대여 해 주는 곳에서 갖가지의 한복을 빌려서 입고 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상감마마, 대감님, 평민, 사또 차림의 옷들을 빌려입고 즐기는 것을 보면서 관광사업이 잘된다 는 의미로 반가웠습니다.

사위의 말에 의하면 한복차림을 한 관광객이 "천 명은 될것 같다"는 짐작을 하였습니다.

그 만큼 한복 입으 사람들이 그 일대를 누비면서 다녔습니다.

추운 것도 아랑곳 없는듯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 안에 두벌이나 옷을 끼어 입었음에도 추위를 느끼는 정도로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서울은 남쪽보다 확실히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듯 하였습니다.

경복궁 앞에 부동자세로 정통복을 입고 문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의 옆에도 관광객들이 계속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초를 서는 그들에게는 매일 같은 일과가 되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1인당 7,100원의 입장료를 시니어라고 면제를 받았습니다. 창덕궁—경회루 1시간이 소요되는 10빌딩이라고 하였습니다.

경복궁은 1863년에 재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회루에서 파티를 했다고 했습니다.

창덕궁—경회루

경복궁-1863년에 재 건축

신하! 왕! 엄마! 왼쪽에 있는 조각은 해태(왕을 상징 있다고 합니다)

(#30) 오른 쪽에 있는 조각은 신을 상징 있다고 합니다.

근정전

왕과 신하40명 축하?

신하들 축하파티

경회루 파티

-----국보-----

근정

경회루 국보

샛노란 은행 나무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자독히 나서 이상하게 생각 했더니 은행이 떨어져서 밟히면 냄새가 화장실 냄새같은 냄새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샌노랗게 물들 은행 나무가 보기에는 화려 하지만 냄새가 고약하여 가로수에서 제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통역 담당자들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등 관광객을 담당하여 안내하느라 바빴습니다.

곳곳에서 국산품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사고 싶은 충동이 있었느냐 단 한가지도 구입하지 않고 절제를 하였습니다.

오후 7시30분에 예정된 큰시동생 집에 당근 하였습니다.

홍은동으로 가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큰 시동생 집앞에서 아빠 닦아서 키가 훤칠한 조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우리를 위하여 갖은 정성을 다하여 저녁 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잠시후 막내 조카 내외가 도착했는데 신부는 제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 사이었습니다.

큰 시동생을 보면서 저의 남편 생각을 하였습니다.

큰 키 잘생긴 용모 입담까지 ...동서는 형님이 좋아 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저를 생각 한듯 마른 생선포와 큰 생선들을 바탕으로 상차림을 한 듯하였습니다.

저의 사위는 아무 식구들과도 초면인데 잘 적응을 하여서 감사 했습니다.

삼촌이 기도 한후 식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제이미에게 온갖 질문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 썼습니다.

시누이의 맏아들이 늦게 합류를 하여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식사를 하는데 큰 시동생은 늦은 밤임에도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우리를 데리고 갈 조카가 내일 일찍 출근 해야 되는 것에 양해를 구하고 대화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제가 하였더니 다른 식구들은 환영이었고 큰 시동생은 아쉬운듯 작별을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은 근근히 만나게 된 저의 남편 신학교 시절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 목사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총회장까지 하신후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신학교 시절 서로가 너무나 어려운 경제 생활을 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저의 둘째 동생이 등기우편으로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모님께서는 더욱 예쁘장 하신 모습이었는데 식사도중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너무나 건강이 좋지못하신 순간들을 넘기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식사를 시작 안하신 것도 생각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아직 아침식사도 안해서 식사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께서 식사 기도후에 식사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31) 제가 뷔페식당에서 그곳에서 만큼 식사를 적게 한 적이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쌓인 말씀들을 진지하게 하셨고 저도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 하느라 자연적 식사에는 신경을 안쓸 정도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도 감사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딸과 저에게 과분한 선물까지 마련해 오셔서 감사하고 죄송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신후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은퇴 목사님들께서 모이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셔서 목사님들의 귀감이 되시는듯 하셔서 감사 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시동생과 딸내외는 등산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딸내외와 시동생은 어찌나 등산을 좋아 하는지

시동생은 동서와 저에게 우리들은 그 앞에 보이는 푸른 산으로 등산할 것과 자신들은 그 너머에 있는 높은 산까지 등산한 후에 연락되는 곳에서 만나자는 말을 한뒤 그 세사람은 순식간에 우리들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등산길은 마루바닥을 깔아 놓았고 테두리가 되어 있어서 손을 잡을 수도 있게 만든 등산길이었습니다.

동서는 등산 초보자인 저의 안내자가 되어 가는데 두꺼운 장갑은 저에게 주고 자신은 얇은 장갑을 끼는등 저를 깎듯이 보호 하기로 작정 한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연결된 등산로는 그다음 등산길은 생각이외로 거칠어서 식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등산 다운 등산을 거의 해본적이 없었던 저는 눈 앞이 깜깜 하였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때 시내산을 올라 갔을때나 페루의 험난한 산길을 단기 선교로 다녀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갔는데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위들이 있는 사잇 길을 제가 주워서 가지고 온 나무가지를 의지하여 오르 내리는데 가파른 바위, 그리고 자갈들이 있는 곳을 내려 오면서 꼭 무슨 사건이 일어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 형님 옆으로 걸어 내려오셔야 돼요 ”

앞에서 시범조로 걸어가는 동서를 따라 옆으로 걸을려고 해도 자잘한 돌에 미끄러 지기도 하고 꼭 무슨 사건이 일어 날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길을 내려 오면서 맞은 편에서 오는 네명이나 되는 남자 등산객들에게 우리가 가는 길을 좀 알

려 달라고 했더니 질러가는 길을 알려 주시던 남자 등산객이 “그길을 내려 가실수 있을찌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다소 어려운 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평생 처음 겪어 보는 혐한 길을 내려 왔더니 그 다음에는 마루같이 판자로 만든 등산길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어 쉬면서 돌아 오면서 더 험하고 먼길을 간 일행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동서와 저는 동서가 준비해 온 사과를 나누어 먹으면서 쌓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나 서로의 마음을 열어 놓고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던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하였는데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할수 없는 말입니다” 저를 믿고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 하는 동서와 제가 가진 그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 하였습니다.

“형님 제가 가장 잘 한 일중 하나는 운전 배운 것이에요”

더먼 곳으로 등산을 한 시동생 일행과 연락이 되어 가는 도중에 동서는 웃으면서 말 하였습니다.

(#32) 옛날 차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걸어서 해결 할수 있었지만 차가 발인 요즈음 엔 차가없이 살아 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운전 면허를 갱신 해야 했을때 다소 긴장을 했으나 하나님 은혜로 시력 검사에 만점을 맞아서 지금부터 8년이 더 연장 된 운전 면허증을 다시 취득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 하였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르게 지난 우리들이 각각 등산을 아무일 없이 잘 마치고 식당에 가서 보쌈, 두부 전골을 시켜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침 그곳이 제가 근무했던 예일여고와 가까운 곳이어서 학교가 보구 싶다고 했더니 기꺼이 밤길을 운전하여 그 곳까지 함께 갔습니다.

수위에게 “제가 37년 전에 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번 학교가 보구 싶어서 왔다고 했더니 허락을 해 주셔서 옛날에 제가 근무했던 건물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옛날을 회상할수 있었습니다 ... 그 넓디 넓은 운동장 , 그리고 앞쪽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목이 크셨던 학원장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넓은 땅을 구입하신 덕택에 , 그리고 그 곳은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어서 더 크게 확장되어 있어서 기뻤습니다. 동서가 서울역 근처에 있는 우리들의 숙소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우리가 출국해야 할 곳을 확인차 가 봤습니다.

그후 우리는 창덕궁으로 향하면서 커피와 간단한 케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어서 무료’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기분이 좋은듯 바닥에서 스키 타는 모습을 하였습니다.

가로수로 있는 은행 나무에서 단풍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미화원은 벌써 큰 비닐 봉지에 세봉 투가 가득 찰 만큼의 나풍임을 긁어 넣었거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는 미화원이 고마웠습니다.

곳곳의 화장실에는 우리들이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안내문들이 많이 붙여 있었는데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면 미세 병균이 없어진다” 는 글도 있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묘로 들어 갔는데 그안에 있는 휴계실에 앉았더니 스크린을 통하여 종묘제례때 춤을

추는 무무(한자참조)를 환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8명이 8줄로 구성한 연주팀, 남성이 제복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민속춤을 추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아하고 경건한 행사를 볼수 있었는데 왕과 왕세자 문무 백관이 참례하는 행사라고 하였습니다. 경복궁의 그 넓은 마당에는 돌로 정1품 신하들의 직위에 따라 돌 조각으로 좌우에 박혀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채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사촌 선제가 5세된 딸을 데리고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단발머리의 고등학생 시절에 만났던 선제는 어엿한 숙녀 티가 나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감사 하였습니다.

명태 코다리와 찌개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탔는데 미처 잔돈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3,900원 요금 낼 곳에 1만원 지폐를 넣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남대문 시장으로 가면서 즐이 길게 늘어서 있는 가게에서 야채빵과꿀빵을 사먹었습니다.

제이미가 필요로 하는 멜빵과 모자를 선물 했더니 “감사합니다”를 연발 하였습니다.

(#33)딸에게는 그곳에서 적당한 것을 사 줄수가 없어서 직접 사도록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시장 국수로 저녁을 대신하고 남대문에서 서울역 까지 걸어서 숙소에 도착한후 우리들의 짐을 쟁기는데 바빴습니다.

동서가 자원하여 우리들을 이른 아침에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감사 했고 동서는 우리에게 맛있는 떡을 준비하여 자동차 안에서 아침식사를 해결할수 있었고 서로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길 했었는데 미처 알지 못하여 동서가 낸다 준 곳에서 제2인천 공항으로 가야 했지만 시간전에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무사히 도착한 것이 감사 하였습니다.

장시간 여행을 같이 했던 딸 내외와 공항에서 나쉬운 작별을 한 후 저는 기내에서 박의;근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신 ‘나를 이끄신 그손’을 감명깊게 잘읽은후 담장까지 쓰는 일을 기내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 했습니다.

종 1품